

유통, 소비처 공동확보로 기반다져

□ 정리 / 김종준 기자

의 정부 육계분회는 지난 '87년 분회로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95년과 '96년 전반기까지 잠시 활동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96년 8월에 김형기 분회장과 백성균 총무 등 40대 회원이 주역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하게 되었다. 의정부, 양주 지역에 분포된 양계농가는 약 190호로 이중 20농가가 분회에 가입하고 있고 육계농가 17가구, 산란계 2가구, 종계 1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육계 총사육규모는 50만수로 기구당 평균 사육수수는 2만수 수준이다. 계사형태는 무창계사보다는 개방계사가 대부분이고 많은 농가가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재래식 계사도 일

부 잔존하고 있다.

생산원료 구입처를 단일화 한다.

사료, 약품, 기자재, 병아리

게 사용하고 있다. 병아리 구입도 양주에 있는 D부화장과 90% 이상의 농가가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품질이 좋은 병아리를 공급받고 있다. 또한 약품 사용업

체도 1개 회사와 거래하므로 약품가격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기타 방역서비스까지 제공받아 질병관리 및 방역관리가 수준급으로 상승되었다.



△ 회원간의 정보교환으로 분회 활성화를 도모한다.

등 육계 생산원료 구입시 되도록이면 여러 회사를 거래하지 않고 일정한 회사를 거래한다. 의정부 분회 회원들과 거래하는 사료회사는 3사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T사 사료를 일괄 구매하여 사료를 1~2% 저렴하

농가 부채가 적다.

IMF시대에 돌입하면서 대부분 농가는 일시적인 생산비 증가로 농가 부채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업을 중단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회원 농가

일부가 안고 있는 부채액은 대개 2~3천만원으로 사료 외상 거래액이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수도 3농가 정도여서 인근의 계열농가나 다른 지역 농가 보다 건실하게 농가경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백성균 총무에 의하면 지역 회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자금 등 국가지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시설자동화 비용은 자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상환에 따른 걱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닭 출하처 확보

의정부 분회 회원들이 출하한 닭은 인근에 있는 도계장(H식품)에서 도계하여 전량 파머스치킨에 납품하고 있다. 파머스치킨은 천영호 분회 고문이 운영하는 회사로 1일 평균 판매량이 2,000수에 달하는데 이 물량은 의정부분회에서 생산하는 육계물량을 전부 충족하고 도 남는 양이다. 파머스 치킨 매장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서울 등에 55개 매장이 분포되어 있어 소비잠재력이 높다. 이 와같이 의정부 분회는 유통, 소비처를 확보함으로써 육계 생산기반을 굳건히 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닭고기 소비량격감

회원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닭고기 판매장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판매장 설립 후 얼마 안되어 IMF를 맞이했고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생산자들의 피해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일반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의정부, 양주, 서울의 닭고기 소비가 격감하였다. 결국 소비감소는 육계생산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원인 설득이 또 다른 과제

의정부, 양주는 서울 위성도시로 발전속도가 빠르고 주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장 주변까지 주택과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축산농가를 상대로 한 민원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민원이 증가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각종 행정규제와 간섭이 심해지자 시외곽으로 농장을 이전하거나 아예 인근 시골지역으로 생산지를 옮기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양계농가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6. 분회 활성화 방안

육계 회원농가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소비처의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닭고기 판매장을 직접 생산자가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준비중에 있고, 닭고기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후라이드 치킨 요리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파머스 치킨을 운영하는 회원들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육계출하시 가격 보합시나 하락시에 발생하는 이중가격시세에 대한 회원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계장과 계속 협상하여 가격할인폭을 줄여 나갈 예정이고, 현금결제 기간을 1주일 이내로 계속 유지하여 회원농가가 육계사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기 분회장은 규모가 큰 부실한 분회를 이끌어 가는 것보다 작지만 건실한 분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의정부 육계분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실있는 분회로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양계

• 회원명단
고 문 : 천영호
고 문 : 김형기
부 회 장 : 유재한
총 무 : 백성균
감 사 : 박용구 이홍이 민영식
일반회원 : 강경환 김성룡 김태순
김태언 박철문 손영선 임운식
조대연 박용선 박규용 이희철
김언한 김태용